

여러분은 좋은 성교육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 이광호 베네딕도(생명문화연구가)
prolifecorpus@hanmail.net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性)을 알려주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TV, 인터넷,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성교육 선생님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성의 진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 생명과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책임을 다 해야만 하고, 남녀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서로가 인격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간호사이며 보건교사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간호대학에서는 주로 생식기 해부학과 생식기계 질병을 위주로 배우서 성의 사회문화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내가 교사인데도 성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성교육 연수를 받으면서 청소년 성교육의 올바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보건교사로서 성교육 역할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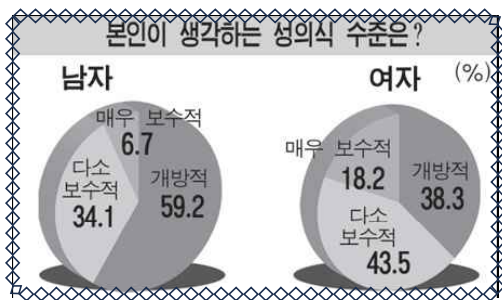


처음 교육을 듣던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눈 뜬 장님이었구나! 보고도 알지 못했으니 장님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또 내가 청소년 시절에 따라하고 동경하기도 했던 대중가요와 그 뮤직 비디오가 저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었다. '나는 왜 몰랐을까? 교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저런 성적 코드들을 신기할 정도로 파악하신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섹스=게임'이라는 성의식이 형성된다는 교수님의 명쾌한 해석은 강의가 거듭될수록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사실 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 내는 '섹스=게임'이라는 가치관을 품은 대중문화를 이용할 양식으로 퍼먹고 성장한 사람 중의 하나다. 그래서 강의 중에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양심에 찔림이 오기도 했다. 나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중학생 때 박지운의 '성인식'을 통해 처음으로 '섹시'라는 말을 인식하고 야한 춤과 선정적인 가요를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당시는 어려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나나 지금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청소년들이나 성의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았고, 1년 동안 이어진 연수 시간에 알게 된 무서운 현실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이 성과 관련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었다. 교육자 자신의 성의식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성교육 담당 교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연수를 듣기 전 나는 현실적으로 성교육의 왕도는 피임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성기 모형까지 사서 콘돔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다. 10대 임신과 낙태율의 증가 등의 사회 문제가 피임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쉬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은 피임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극히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던 것이다. 성과 사랑, 생명과 책임의 큰 그림을 전혀 알

지 못했기 때문에 성교육을 해야 하는 현장의 보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눈 뜬 장님과 같이 누군가 옆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냥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했던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아직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과 생명, 책임, 인격의 성교육을 모르는 교육자들과 잘못된 성문화에 젖어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책임의 성교육을 하루 빨리 알려주고 싶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사랑의 기쁨」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청소년들이 넘치는 견해들, 통제를 벗어난 포르노, 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자극들에 맞서 비판적 사고를 키워 나가도록 해주지 못하면서 넘치는 정보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식별하고 추구하며 사랑에 대한 그들의 능력에 손상을 주는 것들은 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알려 주는 데에 새롭고 더욱 적절한 언어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을 비판하고 식별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만을 택하고 손상을 주는 것들을 피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입니다.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지요.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